

“임신 신고제로 모자보건 혜택을”

새여성세대가오고있다

(1)

—보사부 가족보건과 장옥주 계장—

90년대를 열 새로운 여성세대들이 물려오고 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80년대의 격변을 겪으며 갈등과 좌절, 적응과 성장을 동시에 경험했던 이들은 생산노동현장에 뛰어들어 사회변혁의 기수가 되기도 하고, 직장에 들어가 일을 통한 민주화의 발을 일구기도 한다. 자신의 일을 가지면서도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고, 결혼을 하면서도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독립적이면서도 늘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들 새로운 세대들이 주역이 되어 펼쳐나갈 90년대에 각계각층에서 크게 활약이 기대되는 여성들을 만나본다.

〈편집자〉

새해 들어 공무원 생활 9년째를 맞는 보사부 가족보건과 장옥주(31) 계장은 보사부 사상 첫 행정고시 출신 여성사무관이다.

보사부 첫 고시출신 여성

“공무원이라고 하면 으레 부패, 무사안일주의에 젖은 고리타분한 모습을 떠올리지만 제대로만 한다면 공무원이야말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민주화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늘 고민 성장한 민주 의식 공무원 부패 전제할것

팔만 냇이었던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여자도 반드시 자신의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자랐던 장씨의 어렸을 때 꿈은 판검사였다. 그러나 “사회의 병리부분만을 다루는 판검사보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는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이대 법대 재학시절 행정고시 공부를 시작, 공무원의 길에 들어섰다. 가족보건과 계장으로 올해 장씨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일은 ‘임신신고제’의 정착. 새로 시행되는 모자복지법 중 출산 전인 임신 때부터 보건소 등에 신고하게 해 국가로부터 모자보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모자복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 믿기 때문이다.

탁아관련법 마련할 때

장씨는 또한 지난해 보사부가 탁아법안을 만드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데 대해 아쉬움을 금치 못한다.

상의 가장 큰 관심사다.

따라서 능력이 있어도 선택을 안하고 운동권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 선택을 하고 싶어도 능력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친구들—이 모두가 공무원 생활을 택한 장씨에게는 큰 ‘빛’이다.

“80년대가 문제제기의 시

공무원은 현장감각에 투철한 현실주의자여야 하지만 이상주의자로서의 면모도 아울러 갖춰야 한다고 장씨는 균형감각을 강조한다.

대였다면 90년대는 실천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80년대 성장한 민주 의식이 90년대에는 공무원의 부패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90년대는 실천의 시대

우리나라 여성 공무원의 숫자는 80년대를 거치면서 크게 증가해왔다. 예전부터 그 숫자가 많았던 교원 외에 공무원 공채에 고급 여성인력이 대거 몰린 것은 80년대의 두드러진 현상이다. 지난해 6월 총무처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 여성을 10~15%만 뽑도록 되어 있던 9급 공무원 시험에서의 여성쿼터제를 폐지한 것도 이러한 변화의 반영이다.

치른 89년 9급 행정직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47.1%인 8백78명으로 88년의 10%에 비해 크게 증가, 여성들의 활발한 공무원 진출현상을 볼 수 있다.

5·7급에서도 더디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88년말로 여성 공무원의 숫자는 16만8천6백73명으로 전체의 23.2%이지만 교사가 10만3천1백30명이며 나머지도 7·8·9급에 주로 몰려 있다.

“항상 정책결정에서 소외되어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과감히 반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여성들이 공무원으로 진출하면 좋겠다”고 말하는 장씨의 모습에서 90년대를 여는 젊은 공무원의 균형감 있는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김미경 기자)